

중년의 역기능적 태도, 공감능력 및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 정서적 자기개방의 조절된 매개효과*

서 은 숙¹⁾

이 주 희²⁾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성인들을 대상으로 역기능적 태도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매개효과가 정서적 자기개방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중년기 성인남녀 478명 이었으며, 측정도구로 역기능적 태도, 공감능력, 정서적 자기개방, 대인관계문제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PROCESS 모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중년기 성인의 대인관계문제와 역기능적 태도 간에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공감능력, 정서적 자기개방과 대인관계문제 간에는 부적 상관이 보였다. 둘째, 역기능적 태도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셋째, 공감능력과 대인관계문제 간에서 정서적 자기개방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역기능적 태도와 대인관계문제 간에서의 공감능력 매개효과에 정서적 자기개방이 미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역기능적 태도를 가진 중년기 성인이 대인관계문제를 저하시키는 데 있어 공감능력이 매개변인으로 제시되었으며, 역기능적 태도의 특성에 따라 대인관계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중년기 성인의 공감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자기개방을 함께 고려할 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중년기 성인들의 대인관계문제에 관한 효과적인 상담접근과 심리치료 개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역기능적 태도, 공감능력, 정서적 자기개방, 대인관계문제

* 본 논문은 서은숙의 박사학위논문(2020)을 수정·보완한 것임.

1) 동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박사

2) 교신저자 :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E-mail: maearee@ds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초 고령화가 되어가는 사회에서의 중년기는 정체시기가 아닌 하나의 발달 시기로 중추적인 역할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년기 사회에서의 대인관계는 자신이 어떻게 기능하고 적응하는가에 따라 향후 삶의 전환점인 노년기에서 고립과 침체성에 빠지지 않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다(Arnett, 2016).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조직 우선의 집단주의 가치관과 개인주의 가치관의 충돌(최지영, 박금주, 전숙영, 민하영, 김정은, 2012)로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사회역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을 하면서 곧 진입할 노년기를 준비해야 하는 인생의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기숙, 2003; 김수환, 2010).

가장 비중이 큰 사회적 역할에서는 지금까지 관행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던 중년들의 행동방식이 청년층(15~34세)에게는 통제 지배적인 행동으로 여겨져, 이들의 행동방식을 ‘꼰대’라 표현하며, 조직과 사회의 활력을 잡아먹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로 여긴다고 하였다(동아일보, 2020). 이렇듯 사회 실정상 중년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출판사와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함께 진행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원인 중에 1위는 ‘상사·동료·부하직원과의 대인관계’(25.2%)로, 이는 ‘과도한 업무량’(23.7%)이나 ‘낮은 연봉’(13.1%), ‘상사·고객·거래처의 갑질’(9.9%) 등의 스트

레스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매일경제, 2020). 직장생활 연차별로는 ‘10년 이상’의 중년 직장인의 89.5%가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에 이상이 생겼던 경험이 있다는 답변으로 보아 우리나라 중년들의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심각성을 간과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상의 내용에서처럼 중년기에 대인관계는 조직생활과 가족관계, 정신건강 등 심리적인 접근으로, 한 개인에게 삶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중년기 성인들의 삶의 어려움 중 대인관계가 일차적인 문제가 아닐지라도, 성격적 문제, 사회적 불안, 고립감이나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과 같은 정서적 또는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대인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김민희, 최은실, 2018; Horowitz, Rosenberg, Baer, Ureno, & Villasenor, 1988). 이러한 증상들은 다시 대인관계문제를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쉽다. 인간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대인관계 안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박경옥, 박기환, 2008; Baumeister & Leary, 1995). 대인관계문제는 상호작용 과정 중 상호만족을 추구하는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의 부재, 왜곡 혹은 결함을 의미하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대처하고 보호해 나가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최임정, 심혜숙, 2010). 따라서 건강하고 만족스런 삶을 위해 중년기의 대인관계능력은 필수 요소이며, 개

인 발달상의 과정에 따라 대인관계능력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정옥분, 2013) 개인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중년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세대 연구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중년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의학, 간호학, 체육, 복지 분야에서 신체적 건강이나 스트레스가 주를 이루었다(김미옥, 김경숙, 2016; 정성훈, 2013).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자아정체감,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위기감 등의 변인을 다룬 연구가 많았지만(김민희, 최은실, 2018; 모운수, 김지현, 2016),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대인관계문제와 관련한 중년기에 초점을 맞춘 실증적 자료가 부족한 상태이다.

중년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적 접근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Beck, Rush, Shaw과 Emery (1979)의 인지이론이다. 인지이론에서의 인간관은 긍정적이고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한다는 측면에서 인간의 성장가능성을 시사하고 인간을 의식에 초점을 두고 사고하는 합리적인 존재로 인식한다(Beck, 2011). 위기의 중년기 성인들은 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적합한 판단과 현명한 대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기능적 태도(dysfunctional attitude)를 가지게 된다(권석만, 2013). 중년기의 성인 중 개인에 따라 평생을 쌓아온 지식과 경험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치게 강해 남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만의 주장을 내세우는 모습이나, 주변의 모든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한다는(최인영, 2007) 등의 역기능적 태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인관계문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대인관계문제는 임상장면에서 가장 흔히 호소하는 심리적 갈등이다(Horowitz et al., 1988). 심리적 갈등은 타인과의 관계를 피하거나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의 원인이 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다양한 상황이나 과제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기능적 태도로 나타난다(김미옥, 2014). 이러한 역기능적 태도를 대인관계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살펴보겠다.

공감능력은 타인이 매 순간 느끼고 경험하는 내면의 의미에 민감해지고, 타인의 내적인 세계를 이해하며 그것들과 친숙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Rogers, 1959). 또한 자신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게 하는 과정으로, 다른 사람의 경험을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상상하도록 하는 삶의 양식이라 하였으며, 넓은 의미에서는 치료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박성희, 1994). 이처럼 공감(empathy)능력이란 대인관계에 있어 상호간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타인의 감정이나 내적인 경험, 심리상태 등을 이해하고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박성희, 2004). 지금까지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변인은 주로 자아존중감(이종운, 이선애, 2018; 고선형, 2015), 자기효능감(염선애, 강이영, 2020), 자기분화(윤태교, 이지민, 2017), 심리적 위기감(김수한, 2010; 홍달아기, 이남주, 2006) 등 개인 내 하나의 변인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최근 발표되는 연구들에서는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공감능력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인관계문제로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에 공감능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박성희, 2004; 이종운, 이선애, 2018)와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취하게 된다(배미정, 조한익, 2014; 이주혜, 조영아, 2014)는 연구 결과가 긍정적인 대인관계는 신뢰감을 형성하여 현재 삶의 만족뿐만 아니라 이후 직장과 사회에서의 적응에도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역기능적 태도는 공감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기능적 태도 성향이 높은 개인은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자극과 욕구에도 자존감이나 행복이 위협받는 것으로 심각하게 지각하였다(김은경 등, 1999). 부정적 감정이나 정서표현의 곤란에 영향을 미치며(안하얀, 서영석, 2010), 타인의 감정을 나의 것처럼 느끼고 그에 따른 상황이나 필요로 하는 것을 공감하는 사회적 민감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봉년, 2012). 또한 역기능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역할을 취해보고 대안적인 조망을 취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의 부족으로, 타인의 행위를 예측하고 반응 하는데 부정적으로 대처하게 된다(양영숙, 2008). 특히 역기능적 태도 중에서 성취지향 자율성 역기능적 태도가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았다(안하얀, 서영석, 2010).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지배적인 생각이 타인의 실수나 그에 따른 상황 또는 필요로 하는 것을 공감하는 사회적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의존성 역기능적 태도는 다른 사람의 사랑과 인정 없이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강한 의존성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은 대인관계문제와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김봉년, 2012).

인간은 정서적 자기개방의 경험을 통해서 타인과 우호적인 대인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Jourard, 1971; Jourard & Lasakow, 1958). 자신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나 생각을 타인에게 표현하는 것은 심리적 스트레스 감소와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켜 비교적 안정적인 대인관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Pennebaker, 1997; Lee, Song, Zhu, & Ma, 2017;). 때문에 중년의 정서적 자기개방은 타인과의 친밀감과 지지를 발전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인지적 처리과정이 타인과 공유되면서 주변사람들과의 관계가 견고해지는 결과도 보였다(Callhoun & Tedeschi, 2004). 이는 혼란을 겪은 중년들이 정서적 자기개방을 함으로써,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고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원활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Kim, 2012)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중년기 성인의 역기능적 태도와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가 정서적 자기개방의 정도에 따라 조절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중년기 성인들의 위기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그들의 긍정적인 대인관계형성은 사회적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초안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따라서 중년의 대인관계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한 해결책 강구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역기능적 태도의 왜곡 인지(Beck et al, 1979)가 중년기의 대인관계 과정에서 개인의 적응을 좌우한다(Hill, Oei, & Hill, 1989)는 인지이론을 기반으로, 공감능력

과 정서적 자기개방과 같은 정서적 특성의 개인 내적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대인관계 문제 감소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 40세~만 64세의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역기능적 태도가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이 두 변인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와 정서적 자기개방이 매개효과를 조절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는 중년을 대상으로 한 역기능적 태도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개인 내적인 특성과 문제해결 방식이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공감능력과 정서적 자기개방은 대인관계문제 감소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인관계문제에 관련한 효과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 개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의 역기능적 태도, 공감능력, 정서적 자기개방,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따라서 분석하고자 하는 변인들의 선행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중년의 역기능적 태도, 공감능력, 정서적 자기개방,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중년의 역기능적 태도와 대인관계문제와 하위요인 지배, 냉담, 과순응, 과관여와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중년의 공감능력과 대인관계문

제와 하위요인 지배, 냉담, 과순응, 과관여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자기개방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중년의 역기능적 태도와 대인관계문제와 하위요인 지배, 냉담, 과순응, 과관여와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정서적 자기개방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의 만 40세-만 64세의 중년남·녀 47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남자 144명(30.1%), 여자 334명(69.9%)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40-44세 76명(15.9%), 만45-49세 113명(23.6%), 만50-54세 113명(23.6%), 만55-59세 119명(24.9%), 만60-64세 57명(11.9%)으로 만50-59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 측정도구

역기능적 태도

역기능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Weissman과 Beck(1978)이 연구 개발한 Dysfunctional Attitude Scale을 권석만(1994)이 한국 실정에 맞게 타당화한 역기능적 태도 척도 한국판(Dysfunctional Attitude Scale: K-DAS)을 사용하였다. 역기능적 태도를 크게 성취지향 자율성

과 사회적 의존성 애정욕구라는 두 가지 태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성취지향성 자율성은 “사람은 멋지게 생기고 똑똑하고 돈이 많지 않으면 행복해지기 어렵다”와 같이 개인의 가치 평가나 성취에 있어 지나친 완벽성에 집착하는 경향성이며, 사회적 의존성 애정욕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항상 일을 잘 해야만 한다.”와 같이 타인의 애정과 인정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성취지향성 자율성 13문항과 사회적 의존성 애정욕구 12문항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K-DAS는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보통이다 4점, 매우 그렇다 7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긍정적인 문항은 역 채점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역기능적 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권석만의 연구(1994)에서 Cronbach's alpha는 .86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91로 나타났다.

공감능력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Davis(1983)가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요소의 다차원적 특성을 파악하고 개발한 공감능력 척도인 IRI를 사용하였다. 이를 허순향(2017)이 기존 인지적, 정서적 요소에 행동적 요소를 포함한 다차원적인 공감능력척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타당화 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는 공감능력을 “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내가 그들의 처지였다면 어떻게할지를 생각해 보려고 노력 한다”와 같이 타인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인지적 공감, “나는 좋은 영화를 볼 때, 아주 쉽게 주인공의 입장이

이 되어 생각할 수 있다.”와 같이 타인의 입장이 되어 느낌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정서적 공감, “나는 지인들과 나의 감정에 대하여 종종 대화를 통해 감정을 나눈다.”와 같이 타인에 대해 이해된 것을 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행동적 공감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였고, 3개의 구성요소로 묶여지는 6개의 요인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보통이다 3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허순향의 연구(2017)에서 Cronbach's alpha는 .85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82로 나타났다.

정서적 자기개방

정서 자기개방 측정을 위해 Kahn과 Hessling(2001)로부터 연구 개발된 심리적 불편감 노출 척도(Distress Disclosure Index: DDI)를 한국 실정에 맞게 송현과 이영순(2013)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긍정적 자기개방(예:“나는 속상하면, 대개 친한 사람들에게 속내를 털어 놓는다.”) 6문항과 부정적 자기개방(예:“나는 내 문제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 편이다.”) 6문항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보통이다 3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점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개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정서적 자기개방 척도는 개인이 고통스러운 사건 경험 후 이에 대한 자신의 정서와 생각들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지 혹은 은폐 또는 축소하는지에 대한 경향성을 측정한다. Kahn과 Hessling(2001)이

개발한 원척도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5였으며, 송현과 이영순(2013)이 번안한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9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85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문제

대인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판 대인관계문제 원형척도 단축형(Short form of the Korea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 KIIP-CS)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Horowitz 등(1988)이 개발하고, Alden, Wiggins와 Pincus (1990)가 재구성한 64문항의 대인관계 척도(IIP)를 홍상황 등(2002)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Leary(1957)가 제시한 대인관계의 원형 모델은 지배-순종의 '통제' 차원과 우호-냉담의 '친애' 차원이라는 두 축의 원형 위에 대인관계와 관련한 행동들을 순차적으로 배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Horowitz(1979)는 이를 근거로 척도를 개발하였다. 친애 차원과 통제 차원의 양극을 기준으로 대인관계 원을 8등분하여, 각 8분원에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부호를 관습적으로 부여했다. 8가지 하위요인은 "독단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다른 사람과 마찰이 있을 때가 많다."와 같이 타인을 통제하고 조종하여 지배하는 것과 관련하여 문제를 측정하는 통제 및 지배, "누가 나에게 의지할 때 받아주기 싫다."와 같이 자신의 안녕에 대해 과도한 관심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자기중심성과 "다른 사람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와 같이 정서를 경험하고 공유하는 것에 관련된 문제를 측정할 수 있는 냉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를 자주 피한다."와

같이 비사회적인 경향, 수줍음, 위축 등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사회적 억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당하지 못하다."와 같이 주장성, 자존감 및 자신감의 결여와 관련된 문제를 측정할 수 있는 비주장성, "다른 사람의 감정이 상할까봐 내 주장을 내 세우기가 어렵다."와 같이 독립성을 주장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이용당하거나 쉽게 설득당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할 수 있는 과순응성,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애쓴다."와 같이 타인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과도한 책임의식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희생,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있으면 참견하고 싶어진다."와 같이 타인에 대한 과도한 관여와 관련된 문제를 측정할 수 있는 과관여의 8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Leary (1957)가 제시한 대인관계의 원형 모델 8가지 하위영역을 지배-순종의 '통제' 차원과 우호-냉담의 '친애' 차원이라는 두 축으로 기반한 것에 착안하여, 유사한 행동끼리 2개씩 묶었다. 통제 지배성과 자기중심성을 '지배'로, 냉담성과 사회적 억제를 '냉담'으로, 비주장성과 과순응성을 '과순응'으로, 자기희생과 과관여를 '과관여'로 재설정하여 4가지 하위요인으로 설계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보통이다 3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홍상황 등의 연구(2002)에서 Cronbach's alpha는 .61 ~ .89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대인관계문제 .81, 지배 .82, 냉담 .78, 과순응 .78, 과관여 .85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윤리적 측면에서 연구대상이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심의를 거친 후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서베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설문 문항을 제시하였으며, 오프라인은 설문지를 제작하여 인쇄하였다. 그 후 연구자 및 연구보조원이 지인을 통해서 지인이 근무하고 있거나 소개한 사람들 중 중년기 성인 남녀에게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고, 거리 및 시간상 설문지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설문 링크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전달하여 설문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설문조사 시작 직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설문을 종료하도록 하였다. 오프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의 취지와 더불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통해 연구 참여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는 온라인 340부, 오프라인 200부, 총 540부를 배부하였으며, 이중 온라인 325부, 오프라인 195부, 총 520부가 회수되었다. 5문항 이상의 무응답인 자료나 모든 척도에 한 방향으로 체크하여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응답을 제외한 478부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SPSS 23.0과 SPSS PROCESS macro 3.4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

석 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대한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둘째, 중년의 역기능적 태도, 공감능력, 정서적 자기개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검증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역기능적 태도와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모형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인과적 단계접근법(causal steps approach)을 실시하고,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재표본 횡수를 5000번으로 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조영일, 김지현, 한우리, 조유정, 2015; Hayes, 2013; Shrout & Bolger, 2002). 넷째, 공감능력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자기개방의 조절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함께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변화량의 유의성을 통한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곱하여 생성된 상호작용항을 1단계 다음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하여 조건부효과를 통한 검증을 하였다(Cohen, Cohen, West, & Aiken, 2003; Hayes, 2013). 이때 상호작용항의 변인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인들을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한 후 활용하여 자료 분석을 하였다(서영석, 2010; Frazier, Tix, & Barron, 2004). 다섯째, 역기능적 태도와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가 정서적 자기개방의 수준에 따라 조절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조절변인의 평균과 평균 $\pm 1SD$ 수준에서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조영일 등, 2015; Hayes, 2013). 그리고 조절변인(정서적 자기개

방)이 독립변인(역기능적 태도)과 매개변인(공감능력)을 통해 종속변인(대인관계문제와 하위요인 지배, 냉담, 과순응, 과관여)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조절하는 정도를 수량화한 부트스트래핑 검증이 조절된 매개가설의 공식적인 검정이라고 이야기한 Hayes(2015)의 제안에 따라 index of moderated mediation을 통해 최종적으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중년의 역기능적 태도, 공감능력, 정서적 자기개방, 대인관계문제 및 지배, 냉담, 과순응, 과관여 간의 관계

연구 변인들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등을 분석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 변인들의 일변량 정규성과 경향성 검증을 위해 왜도와 첨도 유의성을 검증하였는데, Curran과 West, Finch(1996)에 의하면 모든 변인의 절대 값이 왜도가 2, 첨도가 7을 초과하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은 왜도와 첨도가 2와 7을 넘지 않아, 일변량 정규성을 만족시키고 경향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도 표 1에 제시하였다.

2. 중년의 역기능적 태도와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역기능적 태도와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인과적 단계접근법 분석 결

표 1. 역기능적 태도, 공감능력, 정서적 자기개방, 대인관계 문제 및 지배, 냉담, 과순응, 과관여의 상관
($N = 478$)

	1	2	3	4	4-1	4-2	4-3	4-4	M	SD	왜도	첨도
1	1								2.76	.86	.70	.73
2	-.24**	1							3.56	.27	-.14	.76
3	.01	.36**	1						3.12	.86	-.02	-.38
4	.63**	-.41**	-.12*	1					2.37	.52	.05	.09
4-1	.60**	-.30**	-.03	.780**	1				2.09	.56	.44	.99
4-2	.51**	-.46**	-.20**	.91**	.69**	1			2.37	.65	.18	-.12
4-3	.49**	-.39**	-.13**	.89**	.52**	.74**	1		2.5	.61	-.01	-.11
4-4	.58**	-.12**	.09	.46**	.60**	.46**	.60**	1	2.46	.62	.13	.07

주. 1. 역기능적 태도 2. 공감능력 3. 정서적 자기개방 4. 대인관계문제 4-1. 지배 4-2. 냉담 4-3. 과순응 4-4. 과관여

* $p < .05$. ** $p < .01$.

과를 보면, 1단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은 대인관계문제($\beta = .63, p < .001$), 지배($\beta = .60, p < .001$), 냉담($\beta = .51, p < .001$), 과순응($\beta = .49, p < .001$), 과관여($\beta = .58, p < .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단계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24, p < .001$). 3단계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변인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대인관계문제($\beta = -.28, p < .001$), 지배($\beta = -.16, p < .001$), 냉담($\beta = -.36, p < .001$), 과순응($\beta = -.29, p < .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의 절대값보다, 3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

는 영향의 절대값이 감소했는지 비교 확인한 결과, 공감능력이 투입되었을 때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대인관계문제, 지배, 냉담, 과순응은 매개변인인 공감능력이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과적 단계접근법의 분석결과는 표 2과 같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부트스트래핑을 분석 결과, 대인관계문제에 공감능력의 매개효과(.04 ~ .06), 지배에 공감능력의 매개효과(.03 ~ .05), 냉담에 공감능력의 매개효과(.06 ~ .10), 과순응에 공감능력의 매개효과(.05 ~ .08) 모두 95% 신뢰구간 안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2. 인과적 단계접근법을 이용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N = 478)

	종속변인: 대인관계문제		종속변인: 지배		종속변인: 냉담		종속변인: 과순응	
	B(SE)	β	B(SE)	β	B(SE)	β	B(SE)	β
Step 1								
독립변인	.38(.02)	.63***	.39(.02)	.60***	.39(.03)	.51***	.35(.03)	.48***
->종속변인								
ΔR^2	.40(.40)***	316.49	.37(.36)***	273.05	.27(.26)***	171.18	.24(.24)***	146.30
Step 2								
독립변인	-.07(.01)	-.24***	-.07(.01)	-.24***	-.07(.01)	-.24***	-.07(.01)	-.24***
->매개변인								
ΔR^2	.06(.06)***	28.87	.06(.06)***	28.87	.06(.06)***	28.87	.06(.07)***	28.87
Step 3								
독립변인	.34(.02)	.57***	.36(.02)	.57***	.32(.03)	.43***	.30(.03)	.42***
->종속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53(.07)	-.28***	-.33(.08)	-.16***	-.86(.09)	-.36***	-.66(.09)	-.29***
ΔR^2	.47(.47)***	211.49	.389.39***	151.18	.38(.38)***	147.69	.31(.31)***	107.90

* $p < .05$. ** $p < .01$. *** $p < .001$.

표 3.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매개모형	<i>t</i>	95%신뢰구간	
		하한	상한
역기능적 태도→공감능력→대인관계문제	.04	.02	.06
역기능적 태도→대인관계문제	.34	.30	.38
역기능적 태도→공감능력→지배	.03	.01	.05
역기능적 태도→지배	.36	.32	.41
역기능적 태도→공감능력→냉담	.06	.04	.10
역기능적 태도→냉담	.32	.33	.44
역기능적 태도→공감능력→과순응	.05	.03	.08
역기능적 태도→과순응	.30	.24	.35

대인관계문제에 공감능력을 매개로 하는 모형에서 직접효과는 .34(.30 ~ .38)와 지배에 공감능력을 매개로 하는 모형에서 직접효과 .36(.32 ~ .41), 냉담에 공감능력을 매개로 하는 직접효과 .32(.33 ~ .44), 과순응에 공감능력을 매개로 하는 모형에서 직접효과 .30(.24 ~ .3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역기능적 태도와 대인관계문제, 지배, 냉담, 과순응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검증한 매개효과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3. 중년의 공감능력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자기개방의 조절효과

공감능력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칠 때 정서적 자기개방의 조절효과 2단계에서 상호작용항($\beta = -.09, p < .05$)과 설명량의 변화량($\Delta R^2 = .01, p < .0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공감능력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칠 때 정서적 자기개방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공감능력이 지배에 영향을 미칠 때 정서적 자기개방의 조절효과 또한 2단계에서 상호작용항($\beta = -.12, p < .01$)과 설명량의 변화($\Delta R^2 = .01, p < .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공감능력이 지배문제에 영향을 미칠 때 정서적 자기개방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공감능력이 냉담에 영향을 미칠 때 정서적 자기개방의 조절효과 또한 2단계에서 상호작용항($\beta = -.12, p < .01$)과 설명량의 변화($\Delta R^2 = .01, p < .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공감능력이 냉담문제에 영향을 미칠 때 정서적 자기개방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조절효과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이후, 조절효과를 확인한 세 모형의 조절효과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건부 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Cohen et al., 2003). 분석결과 정서적 자기개방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그 형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절효과를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1, 그

표 4.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한 조절효과 분석결과

단계		예측변인	결과변인: 대인관계문제				
			<i>B</i> (<i>SE</i>)	β	<i>t</i>	adjust <i>R</i> ²	<i>F</i>
1단계	공감능력		-.82(.09)	-.43	-9.49 ^{***}	.17(.001)	48.74 ^{***}
	정서적 자기개방		.02(.03)	.04	.86		
2단계	공감능력		-.81(.09)	-.42	-9.38 ^{***}	.18(.009)	34.40 ^{***}
	정서적 자기개방		.03(.03)	.06	1.23		
	공감능력×정서적 자기개방		-.19(.09)	-.09	-2.22 [*]		
결과변인: 지배							
1단계	공감능력		-.68(.10)	-.33	-7.01 ^{***}	.10(.007)	24.80 ^{***}
	정서적 자기개방		.06(.03)	.09	1.89		
2단계	공감능력		-.67(.10)	-.32	-6.89 ^{***}	.11(.013)	18.96 ^{***}
	정서적 자기개방		.07(.03)	.11	2.31 [*]		
	공감능력×정서적 자기개방		-.25(.10)	-.12	-2.59 ^{**}		
결과변인: 냉담							
1단계	공감능력		-1.07(.11)	-.44	-10.14 ^{***}	.21(.001)	53.54 ^{***}
	정서적 자기개방		-.03(.03)	-.04	-.94		
2단계	공감능력		-1.05(.11)	-.44	-10.03 ^{***}	.23(.014)	46.00 ^{***}
	정서적 자기개방		-.01(.03)	-.02	-.43		
	공감능력×정서적 자기개방		-.31(.11)	-.12	-2.97 ^{**}		
결과변인: 과순응							
1단계	공감능력		-.90(.10)	-.39	-8.60 ^{***}	.15(.000)	41.60 ^{***}
	정서적 자기개방		.01(.03)	.01	.27		
2단계	공감능력		-.89(.10)	-.39	-8.52 ^{***}	.15(.003)	28.22 ^{***}
	정서적 자기개방		.02(.03)	.02	.46		
	공감능력×정서적 자기개방		-.13(.11)	-.05	1.19		
결과변인: 과관여							
1단계	공감능력		-.39(.11)	-.19	-3.47 ^{**}	.03(.019)	7.82 ^{***}
	정서적 자기개방		.11(.04)	.15	3.02 [*]		
2단계	공감능력		-.39(.11)	-.17	-3.47 ^{**}	.03(.000)	5.21 ^{**}
	정서적 자기개방		.11(.04)	.15	2.96 [*]		
	공감능력×정서적 자기개방		.01(.11)	.00	.08		

* $p < .05$. ** $p < .01$. *** $p < .001$.

림 2, 그림 3과 같다. 유의한 상호작용의 패턴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서적 자기개방을 저 집단과 중 집단, 고 집단으로 각각 나누어 평균의 변화량을 살펴보았다. 공감능력이 낮을 경우 정서적 자기개방 고 집단은 저 집단에 비해 대인관계문제가 낮았고, 공감능력이 높은 경우에는 저 집단의 대인관계문제가 높았다. 즉 역기능적 태도가 공감능력을 거쳐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감능력이 낮을 때는 정서적 자기개방 저 집단이 대인관계문제가 더 많았고, 공감능력이 높을 때는 정서적 자기개방 고 집단이 대인관계문제가 더 작다는 것이다. 또한 공감능력이 낮을 경우 정서적 자기개방 고 집단은 저 집단에 비해 지배적 태도가 높았고, 공감능력이 높은 경우에는 저 집단의 지배적 태도가 낮았다. 즉 역기능적 태도가 공감능력을 거쳐 지배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감능력이 낮을 때는 정서적 자기개방 저 집단이 지배적 태도가 더 낮았고, 공감능력이 높을 때는 정서적 자기개방 고 집단이 지배적 태도가 더 낮다는 것이다. 또한 공감능력이 낮을 경우 정서적 자기개방 고 집단은 저 집단에 비해 냉담태도가 높았고, 공감능력이 높은 경우에는 저 집단의 냉담태도가 높았다. 즉 역기능적 태도가 공감능력을 거쳐 냉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감능력이 낮을 때는 정서적 자기개방 저 집단이 냉담태도가 더 낮았고, 공감능력이 높을 때는 정서적 자기개방 고 집단이 냉담태도가 더 많다는 것이다. 지배적 태도와 냉담태도에서 공감능력의 차이에 따라 정서적 자기개방 고 집단과 저 집단의 차이가 상반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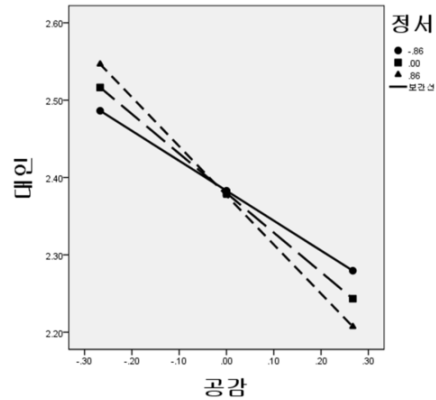


그림 1. 공감능력과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자기개방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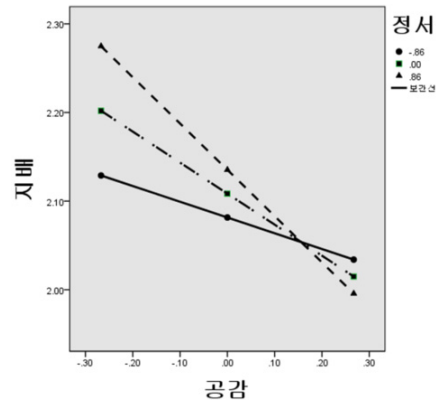


그림 2. 공감능력과 지배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자기개방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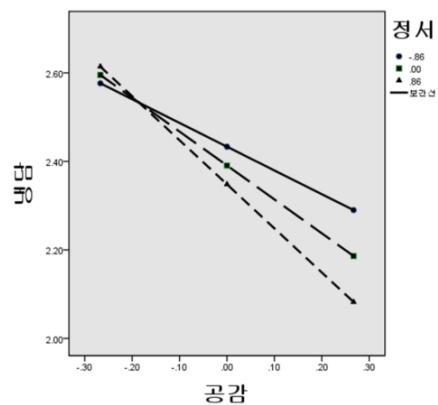


그림 3. 공감능력과 냉담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자기개방의 조절효과

4. 중년의 역기능적 태도와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자기개방에 의해 조절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Müller 등(2010)이 제안한 조절회귀모형과 단순매개모형을 결합한 통합분석모형에 따라 공감능력을 매개변인으로, 정서적 자기개방을 조절변인으로 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Hayes가 연구(2013)에서 제시한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index of moderated mediation의 계수 확인을 위한 분석을 하였다.

조건부 매개효과에 분석결과는 정서적 자기개방의 평균, $-1SD$, $+1SD$ 에 따른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는 $-1SD = -.39(-.57 \sim -.20)$, 평균 $-.51(-.65 \sim -.37)$, $+1SD = -.64(-.81 \sim -.46)$ 로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마찬가지로, 역기능적 태도와 지배와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

과도 정서적 자기개방의 수준에 따라 $-1SD = -.18(-.39 \sim -.04)$, 평균 $-.35(-.51 \sim -.19)$, $+1SD = -.52(-.73 \sim -.32)$ 로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역기능적 태도와 냉담과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도 정서적 자기개방의 조절수준에 따라 $-1SD = -.54(-.79 \sim -.29)$, 평균 $-.77(-.95 \sim -.58)$, $+1SD = -.10(-1.24 \sim -.76)$ 로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분석결과 정서적 자기개방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역기능적 태도와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건부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마지막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공감능력 모형에서 Index of moderated mediation의 계수는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이는 지각된 역기능적 태도와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자기개방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표 5.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매개모형	계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공감능력	$-1SD$	역기능적 태도 →	-.64	-.87	-.41
	평균	정서적 자기개방 →	-.81	-.98	-.64
	$+1SD$	대인관계문제	-.97	-1.19	-.76
공감능력	$-1SD$	역기능적 태도 →	-.45	-.71	-.19
	평균	정서적 자기개방 →	-.67	-.96	-.48
	$+1SD$	지배	-.88	-1.13	-.64
공감능력	$-1SD$	역기능적 태도→	-.78	-1.06	-.50
	평균	정서적 자기개방→	-1.05	-1.26	-.85
	$+1SD$	냉담	-1.32	-1.59	-1.59

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역기능적 태도와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공감능력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자기개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역기능적 태도, 공감능력 및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자기개방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와 이를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의 역기능적 태도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역기능적 태도와 대인관계문제, 네 가지 하위요인인 지배, 냉담, 과순응과 과관여 간의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보았을 때, 과관여에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세 가지 하위요인과는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역기능적 태도와 대인관계문제, 지배, 냉담, 과순응과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감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을 통해 대인관계문제와 지배, 냉담, 과순응의 수준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역기능적 태도가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공감능력이 다시 원인이 되어 대인관계문제와 지배, 냉담, 과순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는 역기능적 태도는 타인의 감정을 나의 것처럼 느끼고, 그에 따른 상황이나 필요로 하는 것을 이해하는 공감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과(김봉년, 2012)를 지지한다. 공감능력이 낮은 경우, 즉 타인에 대한 민감성이 낮으면 타인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이끌어 사회적으로 거리감을 형성하여 대인관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박성희, 2004)와 공감능력 수준은 대인관계유능성과 관련이 높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배미정, 조한익, 2014; 이주혜, 조영아, 2014)를 고려할 때, 공감능력을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활용한다면, 대인관계문제를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허순향, 2017), 공감능력이 대인관계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제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중년의 역기능적 태도가 대인관계문제를 야기하지만, 공감능력이 높으면 대인관계문제가 적어진다는 것으로, 공감능력이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개인이 자각하고 있는 역기능적 태도의 왜곡된 신념을 살핀 후, 중년기 성인들이 가진 공감능력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대인관계문제로 고통 받지 않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공감능력과 대인관계문제, 지배, 냉담, 과순응, 과관여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자기개방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는데, 공감능력과 대인관계문제, 지배, 냉담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자기개방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감능력이 높더라도 대상에 따라 선별적으로 정서적 자기개방을 하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져 원만한 대인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Derlega & Grzelak, 1979)는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공감능력과 대인관계문제, 지배, 냉담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자기개방의 조절효과

를 나타낸 것은, 타인에 대한 이해심과 배려가 정서적·인지적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공감능력은 상대방에 대해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어, 타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사회적으로 지지망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하는(Davis & Oathout, 1987) 연구 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타인이 드러내는 감정에 대한 반응이 높은 사회적 민감성으로 적극적인 공감을 하게 되면 심리적 안정감을 겪게 되므로, 타인과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다(Jourard & Lasakow, 1958)는 선행연구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정서적 자기개방으로 인한 공감능력의 긍정적인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특히 중년의 성인들이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정서적 자기개방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대인관계문제에 공감능력이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이 유의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역기능적 태도와 대인관계문제, 지배, 냉담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가 정서적 자기개방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정서적 자기개방에 의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한 것으로, 중년기 성인이 심리적 문제 등에 대해 경험한 정서를 표현하는 정도에 따라 사회적 관계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Berry & Pennebaker, 1998)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인관계문제와 지나치게 지배적인 행동, 다른 사람에 대한 과도한 거리감을 보이는 행동이 공감능력과 정서적 자기개방의 수준에 따라 조절

된 매개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중년기에 접어들어 당면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공감능력 수준이 낮아 역기능적 태도로 대응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정서적 자기개방을 동반한다면 대인관계문제를 야기하는 부정적 매개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기능적 태도는 정서적 자기개방과 심리적 스트레스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수 있고(Tedeschi & Calhoun, 2004), 나아가 개인의 정서조절을 처리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m & Oh, 1997). 특히 중년기에 역기능적 태도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려 감당하기 힘든 경험에 대한 고통스러운 증상의 증가 및 부정적인 정서 증가에 유의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됨으로써(Kahn & Hessling, 2001)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중년기 성인의 역기능적 태도는 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개입하거나 통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역기능적 태도와 과순응, 과관여와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가 정서적 자기개방의 수준에 관계없이 변화가 없는 것은, 지나치게 순종적이거나 비주장적인 행동과 다른 사람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가지는 행동이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중 하나로써(Garnefski, Kraaii, & Spinhoven, 2001), 연구 참여자들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고 느낌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능력의 의미와 유사하게 인식하여 공감능력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기와 타인을 구별하고 타인의 감정을 대리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지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박성희, 2004), 공감능력을 인지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

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정서적인 문제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추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성인의 역기능적 태도, 공감능력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가 정서적 자기개방 조절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밝힘으로써, 대인관계문제 완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즉 대인관계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중년기 성인의 공감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자기개방을 함께 고려할 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인지와 정서적인 측면이 모두 긍정적일 때 중년의 위기가 닥쳐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담자는 인지에 초점을 맞춘 기존 인지행동치료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고나 정서를 수용하고 변화하도록 도전하는 수용전념치료처럼 정서와 인지 모두에 초점을 맞춰 상담 및 심리치료 전략을 세워갈 필요가 있다. 그동안 공감 또는 대리적 내성(vicarious introspection)으로 내적 경험을 재생하는 그 자체가 일차적인 치료적 변인(Bohart & Greenberg, 1997)으로 접근했다면, 공감능력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적 자기개방의 조절효과를 나타낸 본 연구의 결과는 의미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40세-만 64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성별의 차이가 남성 30.1%, 여성 69.9%로 여성이 남성의 두 배 이상 많아 남·녀 차이검증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성별의 비율과 나이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검증에서 역기능적 태도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절대 값은 줄어들었지만, 하위유형과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이는 역기능적 태도와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으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변인은 연구자가 제시하지 못한 정서적, 인지적 측면과 환경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예측변인(역기능적 태도)과 매개변인(공감능력), 조절변인(정서적 자기개방)은 각 변인들을 하나의 잠재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다 보니, 어떠한 유형이 대인관계문제 유형에 관계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획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역기능적 태도의 2가지 유형과 공감능력의 3가지 유형이 어떠한 특징 있는 대인관계문제와 관계하는지를 확인 한다면,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와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넷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인 지각을 바탕으로 하는 자기보고식 설문 방식을 채택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연구 대상자가 경험하는 대인관계문제가 상호작용 과정 중 상호만족을 추구하는 관계인지, 현실관계의 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지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Horowitz, Rosenberg, & Bartholomew (1993)에 의하면 역기능적 태도차원이 높은 의존성 성향의 성인들은 대인관계문제와 관련 자기보고, 타인의 보고 간에 여러 불일치가

존재하는데, 자기보고에서 친애 차원의 대인관계문제를 더 많이 보고한 반면 친구보고에서는 적대적인 측면의 대인관계문제를 지적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연구설계로 좀 더 다양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성인의 대인관계문제를 줄이는 방안으로 역기능적 태도와 공감능력에 대한 특성과 정서적 자기개방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중년기에 접어든 성인들은 신체적·환경적인 변화 속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있어 지나치게 엄격하고 완벽주의적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이때 공감능력에 대한 취약성과 관련하여 개인이 특정 사항에 직면했을 때 자극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게 만들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떨어지게 만든다. 이는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게 되어 자신만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의 갈등상황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취하지 못해 대인관계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중년기 성인의 대인관계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역기능적 태도, 즉 자존감이나 행복에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점검하고, 타인에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상대방에 대해 개방적인 마음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중년기에 경험하는 대인관계문제를 유의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개인 내적 자원이 될 수 있는 정서적 자기개방 능력 증진과 부정적 인지 감퇴에 도움이 되는 심리적 개입을 제공할 수 있다. 중년기

성인이 인지와 정서적인 측면이 모두 긍정적일 때, 위기가 닥쳐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가 있다는 점에서, 상담자는 인지에 초점을 맞춘 기존 인지행동치료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고나 정서를 수용하고 변화하도록 도전하는 수용전념치료와 같은 정서와 인지 모두에 초점을 맞춘 상담 및 심리치료 전략을 세워 갈 수 있다.

참고문헌

- 고기숙 (2003).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위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선형 (2015). 성인의 자아존중감, 외모관리행동 및 신체이미지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희망을 매개로.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석만 (1994). 한국판 역기능 태도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및 요인구조. 심리과학, 3(1), 100-111.
- 권석만 (2013).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미옥 (2014). 중년기 여성의 대인애착, 내현적 자기애 및 배우자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옥, 김경숙 (2016). 부부 친밀감, 자기효능감, 심리적 위기감이 중년남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1(1), 165-174.
- 김민희, 최은실 (2018). 중년기 남성의 직무만족, 부부만족, 여가만족이 심리적 안

- 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6(2), 87-97.
<https://doi.org/10.7466/JKHMA.2018.36.2.84>
- 김봉년 (2012). 아이의 친구관계, 공감력이 답이다. 서울: 조선애북.
- 김수한 (2010).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위기감과 성역할 및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 이호택, 백주희, 이상연, 홍종문, 이재원, 김선무, 허통옥 (1999). 기혼여성 우울증환자의 결혼만족도와 역기능적 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38(4), 702-712.
- 동아일보 (2020. 1. 1). “다짜고짜 반말에 얼얼-몸평까지... 끈대에 절망하는 청년들” 더 나은 100년을 준비합니다/청년, 끈대를 말하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01/99036397/1>에서 2020년 4월 20일 인출
- 매일경제 (2020. 7. 4). “직장인이 꼽은 직장생활 스트레스 원인 1위는?” 직장인 10명 중 9명 직장생활 스트레스 받는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685531/>에서 2020년 7월 20일 인출
- 모운수, 김지현 (2016). 중년 남성의 성역할 갈등과 중년기에 정서적 위기감의 관계에서 친밀감 두려움의 매개효과. 여성연구, 91(2), 97-126.
<https://doi.org/10.33949/tws.2016.91.2.004>
- 박경옥, 박기환 (2008). 정서강도와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조절양식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3, 77-95.
- 박성희 (1994). 공감, 공감적 이해. 서울: 원미사.
- 박성희 (2004). 공감학: 어제와 오늘. 서울: 학지사.
- 배미정, 조한익 (2014). 내현적 자기에 성향, 자존감,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련성 연구. 상담학 연구, 15(6), 2417-2435.
<https://doi.org/10.15703/kjc.15.6.201412.2417>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송현, 이영순 (2013). 회피애착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정서적 자기노출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6), 3735-3767.
<https://doi.org/10.15703/kjc.14.6.201312.3753>
- 안하얀, 서영석 (2010). 성인애착, 심리적 디스트레스, 대인관계문제: 피드백에 대한 반응, 정서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575-603.
- 양영숙 (2008). 부부갈등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에서 공감과 용서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염선애, 강이영 (2020). 중년기 대인관계능력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진정성의 매개효과와 남녀집단차이. 인문사회21, 11(2), 317-330.
- 윤태교, 이지민 (2017). 20대 성인남녀가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와 자기분화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4), 75-98.

- 이종운, 이선애 (2018). 중년여성의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분노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8(1), 691-700.
<https://doi.org/10.35873/ajmahs.2018.8.1.068>
- 이주혜, 조영아 (2014).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2), 579-594.
<https://doi.org/10.15703/kjc.15.2.201404.579>
- 정성훈 (2013). 중년 남성의 심리적 위기감과 자기 성찰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 (2013).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조영일, 김지현, 한우리, 조유정 (2015). 임상 연구에서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의 비교 및 통합.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4), 1113-1131.
<https://doi.org/10.15842/kjcp.2015.34.4.012>
- 최인영 (2007). 한국 중년세대의 가치관과 성공적인 노화 인식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임정, 심혜숙 (2010). 청년발달. 서울: 학지사.
- 최지영, 곽금주, 전숙영, 민하영, 김경은 (2012). 한국 중년 남성의 집단주의, 직무만족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9(2), 251-269.
- 허순향 (2017). 공감능력 척도 및 프로그램 개발.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달아기, 이남주 (2006). 중년기여성의 위기감과 대처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5(2), 227-237.
- 홍상환,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 척도의 단축형(KIIP-SC)구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923-940.
- Alden, L. E., Wiggins, J. S., & Pincus, A. L. (1990). Construction of circumplex scales for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3-4), 521-536.
https://doi.org/10.1207/s15327752jpa5503&4_10
- Arnett, J. J. (2016). *Development: A cultural approach* (2/e). Australia: Pearson.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https://doi.org/10.1037/0033-2909.117.3.497>
- Beck, A. T., Rush, A. J., Shaw, B. F., & Emery, G. (1979).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York: Guilford Press.
- Beck, J. S. (2011). *Cognitive behavior therapy: Basics and beyond*. Guilford Publications.
- Berry, D. S., & Pennebaker, J. W. (1998). Nonverbal and verbal emotional expression and health. In G. A. Fava & H. Freyberger (Eds.), *Handbook of psychosomatic medicine* (pp.

- 69-83). Madison, CT: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ohart, A., & Greenberg, L. (1997). *Empathy revisited: New directions in psychotherap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alhoun, L. G., & Tedeschi, R. G. (2004). Author's response: "The foundations of posttraumatic growth: New considerations." *Psychological Inquiry*, 15(1), 93-102.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1501_03
- Cohen, J., Cohen, P., West, S. G., & Aiken, L. S. (2003). *Applied multiple correlation/regress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UK: Taylor & Francis.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https://doi.org/10.1037/1082-989X.1.1.16>
- Davis, M., & Oathout, H. (1987). Maintenance of satisfac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Empathy and relational compet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2), 397-410.
<https://doi.org/10.1037/0022-3514.53.2.397>
-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113-126.
<https://doi.org/10.1037/0022-3514.44.1.113>
- Derlega, V. J., & Grzelak, J. (1979). Appropriateness of self-disclosure. In J. Chelune (Ed.), *Self-disclosure: Origins, patterns, and implications of opennes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p. 151-176). San Francisco: Jossey-Bass.
- Frazier, P. A., Tix, A. P., & Barron, K. E., (2004). Testing moderator and mediator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1), 115-134.
<https://doi.org/10.1037/0022-0167.51.1.115>
- Garn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8), 1311-1327.
[https://doi.org/10.1016/S0191-8869\(00\)00113-6](https://doi.org/10.1016/S0191-8869(00)00113-6)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Press.
- Hayes, A. F. (2015). An index and test of linear moderated mediation.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50(1), 1-22.
<https://doi.org/10.1080/00273171.2014.962683>
- Hill, C. V., Oei, T. P. S., & Hill, M. A. (1989).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specificity and sensitivity of the Automatic Thoughts Questionnaire and Dysfunctional Attitudes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11(4), 291-311.
<https://doi.org/10.1007/BF00961529>
- Horowitz, L. M. (1979). On the cognitive structure of interpersonal problems treated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1), 5-15.

- <https://doi.org/10.1037/0022-006X.47.1.5>
-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 A., Ureno, G., & Villasenor, V.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885-892.
<https://doi.org/10.1037/0022-006X.56.6.885>
- Horowitz, L. M., Rosenberg, S. E., & Bartholomew, K. (1993). Interpersonal problems, attachment styles, and outcome in brief dynamic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4), 549-560.
<https://doi.org/10.1037/0022-006X.61.4.549>
- Jourard, S. M. (1971). *Self-disclosure: An experimental analysis of the transparent self*. New York: Wiley-Interscience.
- Jourard, S. M., & Lasakow, P. (1958). Some factors in self-disclosure.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6(1), 91-98.
<https://doi.org/10.1037/h0043357>
- Kahn, J. H., & Hessling, R. M. (2001). Measuring the tendency to conceal versus disclose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1), 41-65.
<https://doi.org/10.1521/jscp.20.1.41.22254>
- Kim, B. M., & Oh, O. H. (1997). Relation of counselor self-disclosure & client trait-anxiety in counseling process. *Journal of Student Guidance*, 16, 1-14.
- Kim, K. E. (2012). *The effects of preventive group art therapy on the improvement of self-expression and the stress reduction in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positive psychological effec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 Leary, T. (1957). *Internati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The Ronald Press Company.
- Lee, M., Song, Y., Zhu, L., & Ma, G. X. (2017). Coping strategies and benefic-find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on-disclosure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breast cancer survivors in China. *American Journal of Health Behavior*, 41(4), 368-377.
<https://doi.org/10.5993/AJHB.41.4.1>
- Müller, J., Wessa, M., Rabe, S., Dörfel, D., Knaevelsrd, C., Flor, H., & Karl, A. (2010).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osttraumatic cognitions inventory (PTCI) in a German sample of individuals with a history of trauma.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2(2), 116-125.
<https://doi.org/10.1037/a0018603>
- Pennebaker, J. W. (1997). Writing about emotional experiences as a therapeutic process.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8(3), 162-166.
<https://doi.org/10.1111/j.1467-9280.1997.tb00403.x>
- Rogers, C. R. (1959). A theory of therapy,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developed in the client centered framework. In S. Koch (Ed.), *Psychology: A study of science: Formulations of the person and the social context*, 184-256. New York: McGraw-Hill.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 Psychology Methods*, 7(4), 422-445.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The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y Inquiry*, 15(1), 1-18.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1501_01
- Weissman, A. N., & Beck, A. T. (197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Dysfunctional Attitude Scale: A preliminary investigat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Toronto.
- 1 차원고접수 : 2022. 04. 24.
수정원고접수 : 2022. 05. 22.
최종게재결정 : 2022. 06. 27.

Relationships among Middle-Aged Dysfunctional Attitudes, Empathy and Interpersonal Problems: Adjusted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Self-Opening

Seo, Eunsuk

Lee, Juhee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Dongshi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empathy plays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ysfunctional attitudes and interpersonal problems in middle-aged adults, and examines the moderating effect verification method to find how much this mediating effect changes with emotional self-opening. The subjects were 478 middle-aged adult men and women, and the dysfunctional attitude, empathy ability, emotional self-opening, and interpersonal problem scale were used as measurement tools. A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interpersonal problems and dysfunctional attitudes of middle-aged adults, and a nega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empathy ability, emotional self-opening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effect of empathy ability between dysfunctional attitudes and interpersonal problems was significant. The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self-opening was significant between empathy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self-open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mpathy ability between dysfunctional attitude and interpersonal problems was significant. To reduce interpersonal problem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dysfunctional attitudes, we confirmed that it could be more effective when considering the empathy ability of middle-aged adults and emotional self-opening. To reduce interpersonal problem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dysfunctional attitudes, we confirmed that it could be more effective when considering the empathy ability of middle-aged adults and emotional self-opening. The above research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effective counseling approaches and psychotherapy interventions on interpersonal problems of middle-aged adults.

Keywords: dysfunctional attitude, empathy ability, emotional self-opening, interpersonal problems